

# 배우 정가람 “청경 고충 이해…조·단역 시절 비슷한 감정 떠올렸죠”

전역 후 복귀작 JTBC 드라마 ‘사랑의 이해’ 택한 데는 ‘도전의 의미’  
극중 은행 경비원 ‘정종현’ 미래가 불안한 20대 모습 현실적 보여줘

배우 정가람(30)이 전역 후 복귀작으로 JTBC ‘사랑의 이해’를 택한 데는 도전의 의미가 컸다. 극중 은행 경비원 ‘정종현’(정가람)은 미래가 불안한 20대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줬다. “배우로서 욕심이 날 법한 캐릭터”라고 짚었다.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지만, 신인 시절을 떠올리며 누구보다 공감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다시 (연기자)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다양한 사람을 통해 에너지를 얻었다”며 “좋은 작품을 만나 행복하다”고 돌아섰다.

“조·단역을 하면서 (종현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하루 아침에 잘 된 게 아니라서 자존심 상한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자연스럽게 접목했다. 직장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마두식’(이시훈) 대리님 같은 분이 있다고 하더라. 은행을 배경으로 하지만,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감사하게도 일을 계속했지만, 나 역시 미래에 관한 불안감이 있어서 공감했다.”

이 드라마는 각기 다른 이해(利害)를 가진 이들이 서로를 만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理解)하는 이야기다. KCU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사내 연애를 그렸다.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경찰 공무원 수험생 종현은 생계를 위해 청경(청원경찰)으로 일했다. 처음에 군복을 벗고, 청경 제복을 입었을 때는 “시원하고 활기찼다”면서도 “나도 모르게 공손해졌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세차를 시키거나 ‘커피 타 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 이전에는 몰랐는데 은행에 가면 청경들이 다르게 보이더라. 그들의 고충을 느꼈고 응원하게 됐다”고 했다.

“단역할 때 한 분이 나를 엄청 밀고 ‘빨리 걸어가’라고 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라. 현실이 이렇구나’라고 느꼈지만, 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사랑의 이해에서) 초반에 대사가 많이 없었지만, 은행 신 짝을 때 계속 나왔다. 청경이라서 예금 창구에 있는 선배들과 항상 떨어져 있었다. 보조 출연하는 분이 ‘만날 은행에 걸려서 좋겠다’ ‘어떻게 한 거냐고 묻더라. 나를 보조 출연자로 오해한 건데, 그 마음이 공감되더라.’

종현은 출근 첫 날 예금창구 4년차 주임 ‘안수영’(문가영)을 보고 반했다. 수영에게 머리끈을 주거나, 반지를 그려서 선물하는 등 지질하게 그려지기도 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수영이는 그 마음마저도 고마워하지 않았느냐. 예쁘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욕 먹은 건 각오했다.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드라마에 몰입한 거라서 좋은 말이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며 “오히려 뒤로 갈수록 수영과의 관계가 잘 표현된 것 같다. 감정을 꾸며내기 보다 ‘본연에 충실하자’고 마음 먹었다. 감정신이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수영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수영은 종현을 보며 하늘에 있는 동생을 많이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종현이 열심히 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 했을 것 같다. 마지막 회에서 종현이 경찰이 돼 교통 정리를 할 때 수영이 ‘썩’ 웃으며 바라보지 않느냐. 어미새가 동지를 떠나, 약간 엄마가 아들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에 종현이 경례하는데, 마음 속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거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인간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 수영은 종현에게 은인이다.”

수영은 종현 앞에서 묵묵히 응원해줬다. 연기자 생활을 하며 수영처럼 힘이 된 존재가 있지 않을까. “어렸을 때부터 활동하며 오

디션에서 수영이 떨어졌다.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많았고, 혼자 울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큰 힘이 돼줬다”며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해 항상 ‘건강해야 한다’고 했다. 부모님이 밀양에 계시는데 응원을 많이 해주고 애정도 깊다”고 귀띔했다.

수영이 사직서를 쓰고 사라졌을 때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터다. “인간 정가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솔직히 현실이었으면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드라마라서 백 번, 천 번 양보해 수영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미 종현과 수영의 관계가 많이 부서졌고, 모든 게 엉망진창인 상태라서 정리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한 번에 모든 상황을 해결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상처만 남았다. 평생 상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 사랑에 진중하고 열정적이다.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생각이 많아졌는데, 약간 다 피우고 올인하는 스타일이다. 종현을 보면서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물론 돈이 많다고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 자신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이 기댈 수 있어야 현실적으로 사랑이 가능한 것 같다. 어릴 때는 무작정 ‘나를 사랑해줘’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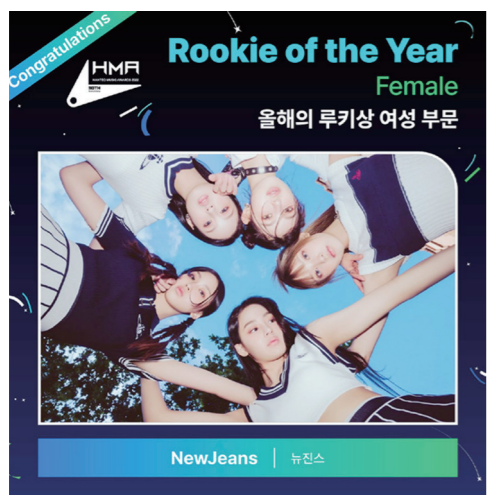
정가람은 2011년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으로 데뷔해 주목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넷플릭스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1·2(2019·2021)로 얼굴을 알렸지만, 바로 군 입대 해 아쉬움도 남지 않았을까. “20대 때는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30대 때 자리를 잡고 싶었다”면서도 “뭔가를 계획하기 보다, 회사와 미래를 생각하며 ‘잘 만들어 가보



자’고 했다.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흐르는 대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어릴 때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막연하게 초등학교 때 교사, 경찰이 꿈이라고 적었다. 밀양에서 자라 기회가 잘 없었는데, 부모님이 영화를 좋아해 영향을 받은 것 같았다. 부산외대 자퇴 후 ‘용돈 안 받겠다’는 조건을

걸고 서울로 올라왔다. 전단지 돌리고 택배상하차 하면서 버렸고, 알바해 번 돈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고 돌렸다. 운 좋게 한 작품씩 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다. 배우는 운동선수와 비슷한 것 같다. 촬영할 때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줘야 하니까. 배역이 커질수록 고민하는 부분이 많아지는데, 더 부딪치면서 나아가려고 한다. 이런 과정이 재미있다.”

## 뉴진스, 신인상 6관왕…‘한터뮤직어워즈’ 올해의 루키상 추가



그들 ‘뉴진스(NewJeans)’가 한 해를 결산하는 주요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추가하며 ‘대세’임을 다시 증명했다. 뉴진스는 10~1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30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2’(HMA)

### 주요 시상식 트로피 추가 ‘대세’ 다시 증명

에서 ‘올해의 루키상(여성 부문)’을 받았다. 지난해 7월 데뷔한 지 반면 만에 신인상만 6관왕이다.

뉴진스는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을 한터차트와 함께 하게 돼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이라며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뉴진스의 하입보이요’라는 밈(meme)도 얻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진스는 신인상을 포함해 지금까지 주요 시상식 총 9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번 ‘한터뮤직어워즈’에 앞서 진행된 ‘2022 더팩트 뮤직 어워즈(신인상)’, ‘멜론 뮤직 어워드 2022’(톱10 본상·신인상),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대상 올해의 퍼포먼스·신인상)’, ‘제37회 골든디스크어워즈(디지털 음원 본상·신인상)’, ‘제32회 서울가요대상(신인상)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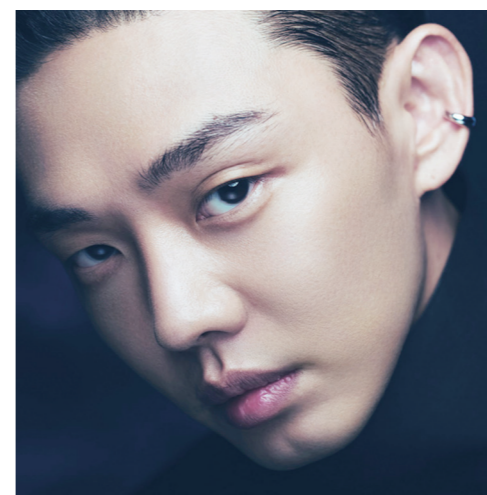
들은 빠짐 없이 수상했다. 뉴진스는 올해 들어서 더욱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싱글 타이틀곡 ‘OMG’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98위(1월 28일 자)로 첫 진입한 뒤 79위(2월 4일 자), 77위(2월 11일 자)로 매우 순위를 끌어올렸다.

또한 이 싱글은 101만 장 이상 판매량을 기록하며 뉴진스에게 첫 밀리언셀러 수석어를 안겼다.

뉴진스는 대중적 인기뿐 아닌 음악성도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20회 한국대중음악상’ 측이 최근 발표한 후보 명단 중 ‘올해의 신인’, ‘올해의 음악인’, ‘올해의 음반’, ‘최우수 K팝 음반’, ‘올해의 노래’, ‘최우수 K팝 노래’ 등 6개 부문서 노미네이트 됐다.

## ‘대마 양성반응’ 배우 유아인, 광고계도 손절



프로포폴 삼습 투약 혐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감정에서 대마 양성 반응까지 나온 배우 유아인(37)이 광고계에서 지

워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유아인을 본뜬 가상 인간 모델을 제작하는 등 거액을 들여 그와 관련된 마케팅에 나섰던 패션 브랜드 플랫폼 A사는 광고를 모두 내린 상황이다.

유아인을 모델로 내세운 B 제약회사도 최근 홈페이지·유튜브 채널 등에 게재된 비타민 광고에서 그와 관련된 사진을 모두 없앴다. 역시 유아인이 모델인 아웃도어 브랜드 C사의 광고 등에서도 유아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유아인이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중국 패션 회사 산하 브랜드는 일찌감치 유아인의 흔적을 지웠다.

누리꾼들은 배우 유아인이 영화 ‘베터랑’에서 유행시킨 대사 “어이가 없네” 등을 인용하며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를 비판하고 나섰다.

## 블랙핑크, 英 ‘브릿 어워즈’ 올해의 인터내셔널그룹 수상 불발

###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 포스트 펑크 밴드 ‘폰테인스 디시’ 수상

영국 ‘브릿 어워즈(The BRIT Awards)’에서 그룹 ‘블랙핑크’의 ‘올해의 인터내셔널 그룹(International Group of the Year)’ 부문 수상이 불발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해당 부문은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포스트 펑크 밴드 ‘폰테인스 디시(Fontaines D.C.)’에게 돌아갔다. 2019년 데뷔 앨범 ‘도르겔(Dogrel)’ 발매 이후 영국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들어온 팀이다. 2021년에도 해당 부문 후보에 올랐었다.

블랙핑크가 지난해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로 미국 빌보드 앨범차트 ‘빌보드200’ 뿐만 아니라 영국 오픈셜 앨범 차트에서도 정상에 오른 만큼 수상 가능성이 일부 있다는 예

상이 나왔으나 고배를 마셨다.

이번 ‘올해의 인터내셔널 그룹’ 후보는 폰테인스 디시와 블랙핑크 외에도 쟁쟁했다. ‘힙합의 제왕’으로 통하는 캐나다 출신 래퍼 드레이크(Drake)와 미국 애틀랜타 출신의 영국 래퍼 21 새비지(Savage), 스웨덴 여성 듀오 ‘퍼스트 에이드 키트(First Aid Kit)’,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기반 삼은 네오 솔 밴드 ‘가브리엘스(Gabriels)’ 등이 경쟁했다.

역대 수상자로는 본 조비(Bon Jovi), 레드 핫 칠리 페퍼스(Red Hot Chili Peppers), U2, 카터스(THE CARTERS), 푸 파이티어스(Foo Fighters), 그린데이(Green Day), 테임 임팔라(Tame Impala), 다프트 펑크(Daft Punk), 아케



이드 파이어(Arcade Fire) 등이 있다. 앞서 K팝 팀 중에선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1 브릿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고 지난해 ‘2022 브릿 어워즈’에서도 역시 같은 부문에 노미네이트됐으나 아쉽게 수상은 불발됐다.

## ‘울랄라세션’ 단장 임윤택, 어느덧 사망 10주기

11일은 ‘공정의 아이콘’으로 통한 그룹 ‘울랄라세션’ 단장 임윤택(1980~2013)의 사망 10주기다.

앞서 임윤택은 암 투병 중에도 2011년 엠넷 ‘슈퍼스타K 3’에서 우승, 가수 지망생은 물론 대중에게 희망을 전하며 ‘공정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타고난 리더십과 책임감으로 리더보다 ‘단장’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됐다. 그러나 2013년 2월11일 진행성 위암 4기 암종증으로 사망, 안타까움을 남겼다.

작년 초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TVING)의 오리지널 콘텐츠 ‘얼라이브’가 임윤택을 조명하기도 했다. 임윤택의 인공 지능(AI) 복원 과정과 함께 다시 그를 만나게 된 선후배 동료들의 인터뷰 등이 이어졌다. 훌륭한 무대 연출가였던 임윤택의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다시 살펴봤다.

